

테마칼럼

이성체제

정치프리즘

경제의 눈

문화 향기

裸身으로 풍요를 기원하다



조현종

나신으로서 신과 소통한 사람들은 풍요로운 수확을 기대할 수 있었다.

裸身(나신)논쟁이 한창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의식에 내재하는 성적 분방함의 작용도 한몫하고 있겠지만 금기와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때문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오래된 나신 조각상은 유명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이다. 오스트리아의 다뉴브강 근처의 빌렌도르프에서 발견된 이 유물은 구석기시대의 유물이다.

청동기시대의 풍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물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이른바 농경 문명통기가 있다. 농사짓는 모습이 새겨진 너비 12.8cm에 불과한 이 청동기에는 2천300여년 전의 다양한 정보가 가득 담겨있다.

성기를 드러낸 채 머리엔 새의 깃털을 꽂고 따비로 밭을 갈고 있는 장면은 압권이다.

새의 문화적 의미는 인간과 달리 자유로움이며 하늘 저 멀리 피안의 세계에 존재하는 신과 교감할 수 있는 전령이다. 그래서 선사시대 사람들은 새 깃털을 머리에 꽂음으로써 새처럼 영혼이 하늘에 오르거나 그들의 바람을 신께 의탁할 수 있다고 믿었다.

수많은 자연신이 존재하였고 또한 숭배되었던 선사시대에 나신의 풍경은 농사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이른 새벽 숲속에 들거나 물가에 나가 나신으로 많은 물고기나 짐승을 잡게 해 줄 것과 신체의 안전을 기원하였다.

나신은 삼국시대 신라의 토용에도 자주 등장하는 모티브이다. 신라의 토우는 호랑이와 사슴, 개 등의 짐승과 다양한 물고기, 하늘을 나는 새 등 '신라의 동물원'을 연상케 한다.

하고 이를 세우거나 높혀놓았다. 신라인의 예로 탁한 아우라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나신의 풍습은 조선시대 기록에서도 발견된다. 우리고장 담양에 있는 미암 유희촌(1513-1577)이 남긴 미암일기(보물 260호)가 그것이다. 미암은 외조부인 최보의 학통을 계승하여 놀재 이항, 하서 김인후와 더불어 호남학맥을 형성하였다.

1547년 미암은 양재역 벽사사건에 연루되어 제주도를 거쳐 함경도 증성지방에 유배된다. 19년간에 걸친 실로 답답한 유배생활이었다.

임춘날 한해의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옷을 벗고 밭을 갈며 씨를 뿌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변방의 비루한 풍속으로 이 얼마나 해괴한 일인가?'고 주석한다.

시설

지방주택경기 부양 규제 해제가 관건이다

정부가 고사 위기에 빠진 지방의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일부 투기지역을 해제하고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일 광주시 광산구를 비롯한 전국 11개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그동안 2차례에 걸쳐 투기과열지역을 해제했지만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해소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투기지역 해제'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정부는 투기지역 해제와 함께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5천 가구를 매입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국민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은 비효율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은 때늦은 미봉책이 아닐 수 없다. 전방위 부동산 규제로 지방주택시장은 미분양 주택이 9만 가구에 이르고 중소 건설업체들의 부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실효성이 의문이기 때문이다.

지방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택 수요를 되살리는 일이 시급하다. 주택 구입 심리를 부추길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통합신당 경선 갈등 정치력으로 풀어나

통합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접임가경이다. 손학규 후보가 동원선거 등에 반발하며 잠행에 들어갔고 정동영 후보측은 손학규-이해찬 후보 연대론과 관련, 호남 배제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통합신당 경선은 시작에 불과하다. 제주, 울산, 강원, 충북 등 4곳에서만 경선을 치렀을뿐이다. 당내에선 남은 경선일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손 후보의 행보는 예상치 못하다. 지난 19일 경선후보간 TV토론을 거부한 손 후보는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잠적했다. 손 후보측은 경선을 포기하는 일 없음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후보 사퇴설까지 나돌고 있다.

통합신당은 경선 갈등을 정치력으로 풀어나야 한다. 갈등이 확산되면 경선은 참담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경선을 마무리해야 대선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통합신당의 경선은 이번 과정에서 드러나듯 한마디로 기대이하다. 동원선거 의혹이 일며 '차떼기·박스떼기'라는 말이 등장했다. 정동영 후보와 김한길 의원의 당권 밀약설이 제기됐고 최근에는 호남배제론도 나왔다.

통합신당은 경선 갈등을 정치력으로 풀어나야 한다. 갈등이 확산되면 경선은 참담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경선을 마무리해야 대선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정재훈 '퇴행성관절염은 나를 수 없으니 그냥 약이나 먹고 참다'가 운명을 맞이하는 것이다. 관절은 근육의 작용으로 구부러졌다 펴졌다 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동작을 하게 한다.

기고 황승주 부유한 사람들을 보다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진보의 기준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말이다. 이에 입각하면 우리 진보의 현주소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축하 화환·화분 재활용 방안 찾아야 얼마 전 모 고급아파트의 모델하우스 전시장을 다녀온 적이 있다. 전시장 한 쪽에는 모델하우스 개장 행사 때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각종 화환과 화분들이 즐비했다.

농대 명칭 변경보다 농업 중시하는 대학 패라 농고가 사라진 지 오래다. 농업 교육은 간신히 그 명맥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을 뿐이고 사립대학교의 경우 농대는 거의 다 사라졌다.

통합신당 경선 갈등 정치력으로 풀어나 통합신당 경선은 시작에 불과하다. 제주, 울산, 강원, 충북 등 4곳에서만 경선을 치렀을뿐이다.

無等鼓 동조골 광주 시내에서 가장 고즈넉한 산책로인 '동조골' 2.3km를 자연공원으로 조성해달라고 요구해왔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